

수능연습 현대시 4

문정희, <겨울 일기>

◆ 본문 분석

· 주제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슬픔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임과 이별한 계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화자가 누워 지내고 있는 이유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고 자신을 진정시켜 보려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마음 속의 분노나 열정도 사라짐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 1연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 아파함
반어적 표현 → 슬픔을 극대화함
(괴롭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워서 편히 지냈다고 반어적으로 말함으로
써 끔찍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게 함)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화자의 황량하고 쓸쓸한 내면세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
추위 울어도

서로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자연은 서로 위로하며 더불어 지냄(화자와 대조되는 상황)

나는 무관해서 ▶ 2연 : 실연의 고통으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
내가 너무 슬프다보니 밖의 자연이 어떤 상태이건 신경
쓰지 않음, 세상과 단절된 화자의 모습

문 한 번 열지 않고
세상과의 단절

반추 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매일 죽음만을 생각하며 지냄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 3연 :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실연의 고통

수능연습 고전시가 3

안조원, <만언사>

◆ 본문 분석

· 주제 :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죄에 대한 반성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남쪽 지방의 뜨거운 여름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명석

덥고 겹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삶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 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손잡고 반겨하는 집(과거)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유배지에서 깃들어 사는 집(현재)

육식진찬 어데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훌륭한 밥과 반찬 보리밥에 소금과 간장(보잘 것 없는 식사)

금의화복 어데 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비단옷과 화려한 옷 누덕누덕 기워 째어진 옷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불품없고 초라한 모양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들이켜 자조적 웃음을 통해 유배생활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표현함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화자가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냄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보리가 익어 보리밭이 누런 빛으로 변함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진간에 굽닐면서
밭 사이에서 몸을 구부렸다 폈다 일하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우회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보리쌀로 빚은 단술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깨운들

연년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은 밥쌀 하고 일분은 술쌀 하여
쌀로 일부는 밥을 하고 일부는 술을 만들어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농부들의 편안한 삶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 : 먹을 것이 풍족함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라면
욕심 없이 농사짓는 삶의 즐거움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흰 구름(욕심없는 생활) 푸른 구름(공명을 추구하는 생활)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화자 자신)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원 줄 아니
그른

뉘우쳐 하는 마음 없어야 하라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피에 들어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 욕심을 부려 공명을 탐해
죄를 지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나타남